Covid-19와 기후비상 대응 니밋따 융합명상
- Nimitta 융합 숲 명상을 중심으로 –

이 종 수(現, 창의융합명상궁 대표, Ph.D)
(前, 중앙대 행정대학원 학술교수)

Ⅰ. 연구목적,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코비드-19 위기, 기후 위기(비상) 관련 도시 환경과 조화된 인성함양적 접근과 기후비상 대응 측면을 중심으로 도시 숲 창의, 감성 융합명상법을 대안으로 제안

Ⅱ. 인류가 직면한 한계와 과제

□ WP는 의료계 종사자 4500만명을 대표하는 450개 단체의 “기후 위기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건강 위험”이란 면을 강조

□ 인류가 익숙했던 대기 순환이 지구온난화로 돌변, 극심한 기후변화 빈발. UN은 이 같은 글로벌 기후재앙에 세계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

Ⅲ. 코비드 & 기후비상 대응과 도시 숲

□ 국내외적 비대면 현상과 국제적인 코비드(Covid-19) 팬데믹(Pandemic) 만연

□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기후 비상(climate emergency)' 포함, 코비드&기후비상 원인주체는 인간

□ 국내적 측면의 자전거타기, 자연사랑, 나무 심기, 채식(菜食), 숲 명상 등을 상정함. ‘도시와 숲의 공존’을 위한 「도시숲법」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 환경에 기여

□ 국제적 측면에서 보면 「파리 기후협약」을 지켜야 함. 기후비상 대응 탄소 문제는 기본소득 탄소세와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해 재원 마련. 핀란드의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코비드와 기후비상 대응 대안의 하나가 「니밋따(nimitta) 융합명상」임. 혼자 있기 장소인 숲은 물리적 공간적으로 코비드 등을 차단시켜 줌과 동시에 기후비상을 저감시키는 저탄소에 긍정적임. 송파 오금공원 松林의 필자 (六藝)융합명상 건강, 감성, 창의 효과성 입증

Ⅳ. 기대 효과

□ 비대면 접근인 혼자 있기 훈련 「숲 니밋따 융합명상」은 도시 숲 활용을 통한 국민의 심신 건강과 창의, 감성을 啓發케 함. 기후비상 대응을 위한 도시 숲 육성으로 도심 熱氣 저감 공간, 저탄소 기여, 온실가스 저감 효과, 이웃 사촌 만남 공간, 스트레스 치유